

한단계 진화한 '스마일프로', 시스템·의료진 숙련도 중요



건강 바로 알기 시력교정술

김재봉

신세계안과 원장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가까워지면 시력 교정술 관련 문의를 위해 안과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수험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등의 시력 교정 도구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거나, 취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시력 교정술에 관심이 있는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지인 소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만, 시력교정술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위인 만큼 정밀 검진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과에서는 정밀검진을 실시, 시력검사, 각막 모양, 두께, 광막 등을 확인하며 기타 안질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한다. 또 환자의 취미, 생활환경 등을

빨라진 수술 속도에 감염 위험 감소
안구건조·빛번짐 등 부작용 낮춰
수술 다음날 일상생활 복귀 가능
정밀검진 통해 적합한 수술 필요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특히 대학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앞두고 시력 교정술을 받는 경우는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빠른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시력교정술에는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등이 있다.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든 뒤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교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라섹은 각막 상피를 일부 제거한 뒤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개선하는 수술법으로, 외부 충격에 강해 활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라식보다 통증이 있고 회복이 더딘 편이다.

라식과 라섹의 장단점을 결합한 스마일라식은 각막 미세 절개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각막 신경 손상이 적어 통증이 거의 없고 수술 다음 날부터 세안, 샤워, 화장, 운전, 전자기기 사용 등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스마일라식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한 '스마일프로'가 도입됐다. 스마일프로는 스마일라식과 마찬가지로 각막 미세 절개로 수술을 시행하지만, 더욱 빨라진 수술 속도로 인해 수술 중 감염 위험을 낮추고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이 특징이다.

또 수술 중 안구를 고정하는 석션이 풀리는 문제인 석션로스 확률을 줄여 수술 안정성이 높아졌다. 레이저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안구건조증, 빛 번짐, 원추각막 등의 가능성도 낮았다.

스마일프로의 오픈라인 기능은 난시 축에 맞춰 회전 후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정교한 난시 교정이 가능해졌고, 검사 시 측정된 시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센트럴라인 기능도 새롭게 추가돼 보다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재봉(사진) 광주신세계안과 대표원장은 "스마일라식이나 스마일프로는 경험이 충분한 의료진일

수록 각막 실질을 얇게 제거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성과 시력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만족도 높은 시력교정술을 위해서는 가격, 이벤트, 후기보다 스마일라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술기가 우수한 의료진이 집도하는지, 수술 장비는 잘 갖춰져 있는지, 체계적인 정밀검사 시스템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잘 알아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신세계안과는 최근 스마일라식 수술 8만례를 달성했다. 올 초 7만례 인증 이후 반년 만이다.

스마일라식은 전 세계적으로 800만 안 이상 집도된 시력교정 수술로, 국내에서도 100만 안을 돌파한 수술로 8만안이라는 숫자는 전국적으로도 단일 안과 기준으로 또 한 번의 이례적인 성과다.

광주신세계안과는 최근 스마일라식을 진행했던 비주맥스 500보다 업그레이드된 장비인 비주맥스 800을 사용하는 스마일프로를 도입해 성공적인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일프로는 레이저 조사 시간이 10초 내로, 기존 스마일라식보다 3배 이상 단축된 레이저 조사 시간 만큼 석션로스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건강관리협회·스파크바이오, 메디오픈랩 데이 개최

최신 업계 트렌드 공유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지난 25일 '메디오픈랩데이'를 개최했다.

'2024 메디오픈랩데이'는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 바이오 분야 초기 및 예비 창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을 위해 스파크바이오가 주관한 행사로, 참여기관의 올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실증사업 사례와 최신 업계 트렌드를 공유했다.

올해 처음으로 메디오픈랩데이에는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충기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조인성 교수,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조재용 병원장,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한인석 사업단장,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성과 발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 펀드 투자 계획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메디오픈랩 입주기업인 엑스큐브 임재관 대



표, 시스템스코리아 배경은 이사, 피플바이오 강성민 대표를 포함한 7개 기업이 발표했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메디오픈랩을 통해 많은 헬스케어와 바이오업들이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합

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건협은 지난 4월 건강검진기관 최초로 공유실형실 '메디오픈랩'을 개소했다. 현재 메디오픈랩에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관련분야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장애인기관에 기부물품 전달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승욱)은 최근 유관기관과 협력해 광주시 각 구별로 5개 장애인 기관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수검인중 이벤트'와 연계해 이루어졌으며, 이벤트 기간 광주시 장애인들이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면 광주 장애인 보건의료협회가 기부금을 적립

하여 기부물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기독병원을 포함한 주요 참여기관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취약 시설 장애인들에게는 기부물품을 전달하여 더 큰 의미를 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기독병원 외에도 국민건

보병원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복지재단,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복지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장애인 건강검진 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했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 캠페인

'여수동동북축제'서 친환경 체험 행사·상담 부스 운영 등 진행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전남도환경보건센터는 최근 여수에서 열린 '여수동동북축제'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 및 교육 캠페인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은 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에서 지역의 건강 증진과 환경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환경보건센터는 축제에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친환경 체험 행사를 진행, 환경성질환 예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데도 노력했다.

또 환경성질환 관련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개인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유해 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환경성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텀블러 소지자 무료 음료 제공 이벤트 ▲알레르기질환 바로 알기 ▲유해물질 바로 알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친환경 상품을 제공했다.

전남도환경보건센터장 박원주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이 환경성질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환경보건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